

전후 일본의 미디어 문화와 ‘전쟁 이야기’의 변용

후쿠마 요시아키 (리쓰메이칸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구혜원

전후 일본에서는 ‘반전(反戰)’의 규범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 군부 비판에 초점을 맞춘 영화 <일본 전몰 학생 수기: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1950년)이 흥행에 대성공 했으며, 영화의 원작인 태평양 전쟁 때 전사한 학도병들의 유고집이 이와나미문고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스테디셀러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전후 일본의 전쟁관이 한결같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GHQ 점령이 끝나자 병사들의 복잡한 심정에 초점을 맞춘 전쟁영화(<구름이 흐르는 끝에>(1953년) 등)가 제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무의미한 죽음’에 착안한 특공영화 <아, 동기의 벚꽃>(1967년)도 만들어졌다. 때마침 젊은 세대는 전쟁 체험에 집착하는 전중파(중전을 20대 초반에 맞이했으며, 전쟁에 가장 많이 동원된 세대)를 맹비난하며, 그 ‘피해자 의식’을 힐난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이후 야스쿠니 신사 국가 호지(護持) 운동 등 ‘사망자의 현창(顯彰, 공적을 드러내어 밝히는 일)’을 지향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사망자들이 죽기 직전에 가졌던 심정에 치중하면서 현창의 정치성을 거부하고 국내외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려는 움직임이 지식인들의 담론 안에서도, 또한 일부 전쟁 영화에서도 나타났다.

본 보고에서는 주로 전쟁영화와 동시대 지식인들의 담론을 살펴보면서, ‘체험’, ‘책임’, ‘가해’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함께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와다쓰미』의 대성공

1949년, 태평양전쟁 때 전사한 일본 학도병들의 유고집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도쿄대학협동조합출판부)이 간행되었다. 이는 전사한 대학생, 구제(舊制)전문학교생 75명의 일기와 편지 등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 소설과 같은 스토리가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1950년 연간 베스트셀러 4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 유고집의 기조에는 전쟁 수행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철학과 자유주의에 이끌려 학문에 대한 애정이 강했음에도,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내몰려야만 한다. 이 같은 ‘반전’에 대한 공감대가 이 유고집의 기록적인 판매를 뒷받침했다. 도쿄 재판 등을 통해 이미 옛 일본군의 조직 병리와 전쟁터에서의 만행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성전(聖戰)’이라는 미명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생활이나 언행을 압박하고 철저하게 패전을 초래한 군부에 대한 원망이 컸다. 이러한 ‘전쟁 비판’, ‘반전’의 확산이 이 유고집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독자를 양산했다.

1950년에는 이 유고집을 바탕으로 영화 <일본 전몰 학생의 수기: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이 제작되었다. ‘극악무도한 직업군인’ 대 ‘이성적이고 반전 지향적인 학도병’이라는 대립적 도식을 기조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원작만큼이나 대히트를 쳤고, 경영난에 빠져 있던 영화사(토요코영화)가 이 작품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와 유고집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은 생각해 보면 기묘한 일이지는 않다. 쇼와 초기의 고등교육(대학·구제고등학교·구제전문학교 등) 진학률은 세대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했다. 이 책에 수기가 담긴 전사한 학도병들은 사회적으로 극히 한정된 학력을 가진 엘리트들로, 일반 국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였다. 그런데도 왜 『와다쓰미』를 읽고 많은 일본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을까.

거기에는 교양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다이쇼 시대(1912~1926)부터 쇼와 시대인 1960년대에 걸쳐 대학·구제고등학교에서는 교양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엘리트라면 철학, 사상, 문학, 역사 등의 고전과 친숙하고 인격을 도야해야 하는 것이 규범 문화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학력 면에서의 엘리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후 초기에는 의무 교육에서 더 진급하지 못한 근로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 억울함을 배우기라도 하듯 독서나 삶의 방식, 사회 비판을 다루는 ‘인생잡지’가 널리 읽혔으며, 청년단이나 청년학급에서는 종종 독서모임이 열렸다.¹ 과거 전쟁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삶의 방식이나 사회를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방향도 있었다. 거기에는 ‘교양(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동경이 있었다.

전사한 엘리트 학생들을 다룬 『와다쓰미』(유고집·영화)는 그러한 교양의 상징이기도 했다. 유고집과 영화에서의 철학·사상에 대한 언급은 청중의 ‘교양’에 대한 동경을 재확인시키고, ‘교양’을 빼앗긴 학도병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비애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군·정치 지도자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전전(前戰)과 지식인에 대한 위화감

하지만 『와다쓰미』 열풍에 대한 위화감도 없지는 않았다. 특히 위 세대 지식인들은 전사한 학도병들이 기술한 것에 대해 그 교양의 ‘얕음’을 종종 지적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들어라, 와다쓰미의 목소리를』에 나타나는 학도병들의 기술은 도저히 ‘무교양’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다나베 하지메나 칸트 같은 철학자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껴진다. 그러나 당시 나이 든 지식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세대 구분으로는 전시기 이전의 시대에 정신적 형성을 이룬 전전파에 속했으며,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 서양의 자유주의·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에도 폭넓게 친숙해져 있었다. 반면에 종전을 20세 초반에 맞이한 전사한 학도병들(전중파)의 경우, 그들이 철이 들었을 무렵 만주사변이 발발했으며 중등 교육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시체제 하에 청춘의 시기를 보낸 이들에게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위 세대에 비하면 서양의 고전을 손에 넣을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교양 체험의 차이를 전전파 지식인들은 『와다쓰미』에서 느끼고 있었다. 때마침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에서도 재무장과 헌법개정, 징병제 부활이 논의되는 가운데 ‘감성적이고 얕은 교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반전 의식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구상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위 세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나타났다.²

그러나 애초에 전후에 와서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기(戰時期)에 행했던 자신들의 언행을 덮으려는 것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문화인들도 전시기에 전쟁을 찬미하는 글을 쓰거나 일본주의 운동에 힘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도 반상회와 부녀회, 청년단 등을 통해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럼에도 전후에 이들은 이러한 과거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반전’을 외치기 일쑤였다. 격침된 전함 야마토에 승선하여 기적적으로 생존한 전직 학도병 장교 요시다 미쓰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쟁 중 자신이 저질렀던 언행의 실태를 실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을 전쟁 피해자 또는 은밀한 반전가의 입장으로 만듦으로써 전쟁과 절연을 꾀하려는 풍조가 전후 오랜 기간 우리 주위를 지배하고 있었다.³

이는 전후 일본의 ‘반전의 올바름’과 관련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적이었다. ‘반전’은 때로는 ‘성전(聖戰)의 올바름’을 외쳤던 지난날의 언행을 외면하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 자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반전의 올바름’에 대한 회의

‘반전’에 대한 이러한 위화감은 1950년대 전반의 미디어 문화에도 투영되어 있었다. 1952년 6월에는 하쿠오유족회(편) 『구름이 흐르는 끝에: 전몰 비행 예비 학생의 수기』가 간행되었고, 이듬해에는 이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와다쓰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유고집과 영화는 함께 화제가 되었으며, 그 기저에 있는 것은 학도병들의 ‘순수함’이었다. 학업을 중단하고 애인과 헤어져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일에 괴로워하면서도, 전우와 함께 사지로 향하는 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물상이 여기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분노가 강조된 『와다쓰미』와는 이질적이었다.

이 같은 전쟁 묘사가 가능해진 데는 GHQ의 점령이 종결된 영향이 컸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2년 4월 발효되어 점령 통치가 끝나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구군(舊軍) 회고와 미국 비판, 도쿄 재판 비판 담론이 터져 나왔다. 학도병이나 특공대원의 ‘순수함’이 발견된 것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는 ‘왜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고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와다쓰미』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반전’에 대한 심정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며 구제고등학교나 제국대학에 다니는 최고 엘리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본주의적 학생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⁴ 한커우 함락(1939년)이나 진주만 공격(1941년) 때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얻은 성과’에 환희했고 이후에도 전쟁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영화 <구름이 흐르는 끝에>의 감독을 맡았던 이에키 미요지는 “나는 특공대에서 멀리 떨어져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적어도 반(反) 협력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협력자였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속고 있었다’라는 시각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속았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가. 만약 내가 속았다고 한다면, 나는 속인 인간에게 아무런 중요심도 없다. 그저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을 뿐이다”라는 기술에는 전쟁 수

행을 뒷받침한 자기 자신, 나아가 국민 전체를 추궁하려는 의지가 역력하게 나타났다.⁵ ‘순수함’에 대한 주목은 한편으로는 ‘반전의 올바름’에 힘씀으로써 간과하기 십상인, 전시기 국민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대 간의 단절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이후의 미디어 문화 속에서 그다지 심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들어 표면화된 것은 전쟁 체험을 둘러싼 세대 간의 단절이었다.

가장 많이 전쟁터로 내몰렸던 전중과 세대는 ‘전쟁 체험에 대한 이야기하기의 곤란함’에 구애되는 경향이 있었다. 군대 내 폭력에 노출된 데서 비롯된 증오나 모욕감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의 일원이었다는 점과 전우를 버리고 도피한 데 대한 자책, 회한, 우울감도 컸다. 이렇듯 정리하기 어렵고, 또 언어화하기 어려운 정념 때문에 전쟁 체험을 알기 쉽게, 혹은 기분 좋게 말하는 것에 격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의 사회 상황은 그 생각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었다. 1960년에는 미일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이 고조되었고, 비준 하루 전인 6월 22일에는 전국에서 6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는 등 전후 최대의 시민 운동이 되었다. 기시 노부스케 정권의 강권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반감에 더하여, 일본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운동을 더욱 고양시켰다. 물론 과거의 전쟁 체험은 60년의 안보 투쟁과 연관되어 회자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전중과 세대는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에 맞추어 전쟁 체험을 유용하는 듯한 논의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 체험의 어떤 부분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이외의 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후 베트남 반전 운동과 오키나와 반환 문제, 70년 안보투쟁이 한창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에도 전중과 문화인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젊은 세대는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 정치 운동에 전념하던 이들이 보기에 전중과 세대의 언행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운동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야기하기 곤란함’을 고집하는 전중과의 자세는 전장 체험을 내세우는 것처럼 여겨졌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체험자인 전중과 세대에 대해 아무래도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젊은 세대의 이에 대한 조바심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양주의의 논리와도 통하는 것이었다. 교양주의가 ‘고전 독서를 통한 인격도야’인 만큼, 거기에서는 동서고금의 고전을 많이 읽은 위 세대 지식인들이 젊은이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었다. 상술한 전전과 지식인들이 전사한 학도병들의 ‘교양의 결여’를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화제가 되는 자리에서 많은 체험을 했던 전중과는 체험이 없는 젊은이들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젊은 세대가 이 같은 전중과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전중과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 등에서 종종 과거의 체험에 간혀 있는 듯한 전중과의 자세에 대해 발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1969년 와다쓰미상 파괴 사건(『들어라, 와다쓰미의 목소리를』의 간행 기념으로 리쓰메이칸대학에 건립된 동상을 학생들이 끌어내린 사건)은 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전쟁 대작 영화는 자주 크게 흥행했고 젊은 관객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병사들의 장렬함과 비장미로부터 거리를 두는 작품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68년 연간 흥행성적(일본영화) 7위를 기록한 특공대 영화 <아, 동기의 벚꽃>은 제작 및 배급 영화사인 도에이의 의향 때문에 입협 야쿠자 영화의 스타 배우들을 대거 기용할 수밖에

에 없었지만, 마지막은 미군의 함포 사격으로 특공대가 줄줄이 격추당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전중파보다 아래 세대에 해당하는 감독 나카지마 사다오도 ‘하나같이 전중파가 떠벌리는 이야기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상황에 대한 반감으로 ‘죽음’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그 ‘무의미함(및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였다.⁶

‘피해자 의식 비판’

전중파에 대한 불쾌감의 연장선 상에서 발견된 것이 ‘피해자 의식 비판’이었다. 젊은 세대는 전중파 세대의 ‘피해자 의식’을 자주 비판하고, 전쟁 중 행했던 ‘가해’를 직시하지 않는 자세를 따져 물었다. 일본 전몰 학생 기념회(『들어라, 와다쓰미의 목소리를』의 간행을 계기로 1950년에 설립된 반전운동단체)의 심포지엄에서도 전중파 문화인들을 규탄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전중파 세대가 전장을 체험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와 상관 없이 여러 가지 ‘가해’를 저지른 일본군의 일원이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전장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필연적으로 전장에서의 ‘가해’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 의식 비판’이라는 논점은 전쟁 체험을 둘러싼 전중파와 젊은 세대의 계급을 반전시켜, 전중파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우위를 이끄는 논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사회적 배경으로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군의 북부 베트남 공습 소식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그 중 많은 미군들은 오키나와나 사세보에서 출격하였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본의 ‘가해’를 의미했다. 또한 베트남 공습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의 공습 체험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구(舊) 일본군의 동아시아 지역 침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전쟁은 전시기 및 전후 일본의 ‘가해’를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역할을 했다. 전중파 세대의 ‘피해자 의식’과 ‘가해’에 대한 비판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견되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전후 일본 영화 중 그때까지 ‘가해’에 대해 주목하는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치카와 곤 감독의 <들불>(1959년)은 필리핀 전선 하에 식량을 찾던 일본군이 현지 주민을 사살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 이외에도, 현지 여군의 일본군에 대한 엄청난 증오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영화에서 ‘가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회피하듯 일본 해군의 해전이나 특공작전이 많이 다루어졌다. 육상 전투와는 달리 해전이나 공중전은 ‘사람(적군, 현지 주민)’에 대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그릴 필요 없이, 어디까지나 군함, 전투기와 같은 ‘기계’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1968년)를 비롯하여 1960년대에 흥행에 대성공한 전쟁 영화는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일본 해군의 해전과 공중전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주제는 ‘가해’, ‘폭력’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⁷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가해’로부터 눈을 돌리는 듯한 논의의 양태가 문책되기도 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쟁 체험을 둘러싼 세대 간의 단절과 베트남 전쟁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자기에 대한 질문과 현장의 거절

‘가해’, ‘책임’을 둘러싼 물음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중파 세대의 논의 안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레이테 만 해전에서 가라앉은 전함 무사시에 승선했던 와타나베 기요시는 종전 후 천황이 맥아더와 나란히 서 있는 신문사진을 보고 죽은 전우를 배신한 듯한 천황의 행동

에 강렬한 증오를 품었다. 그 일이 1960년대 이후 와타나베가 천황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와타나베는 천황을 문책할 뿐만 아니라 천황에 대한 승배의 마음으로 해군을 지원하여 자진해서 전쟁에 협력한 자기 자신도 힐문했다.⁸ 여기에서는 천황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만을 지탄하고 스스로는 면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행을 믿고 술선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말단에 있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고 있었다.

더욱이 와타나베의 논의는 ‘스스로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죄’를 묻는 것이었다. 와타나베는 자서전적인 에세이 『부서진 신-어느 귀환병의 수기』(1983년)⁹에서, 귀환한 고장의 농민이 점령지에서 저질렀던 자신의 잔악무도함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비판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자답했다. 와타나베의 논의는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폭력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이는 폭력을 낳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도 이어진다. 애초에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악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력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옳음’마저 띠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병참을 무시한 작전 수행, 전쟁 성과에는 조급해 하는 상관들의 출세욕, 합리적 판단보다는 공격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군 상층부. 이러한 군의 조직 풍토가 말단 병사들에게 무모한 행군을 강제하고, 그들을 자포자기의 상태로 내모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전차병으로 동원된 작가 시바 료타로는 전국 시대와 막부 말기, 메이지 시대를 다룬 역사 소설에서 일그러진 쇼와 육군을 종종 이야기에 겹쳐 놓았다.¹⁰ ‘스스로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죄’를 자문한 와타나베 기요시의 논의도, 그것을 파고 들면 폭력과 파탄을 초래한 군과 정치의 조직 병리 문제에 귀착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죽은 자의 현창에 대한 거부로도 이어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야스쿠니 신사를 국영화하고, 국가가 공적으로 전사자를 현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일본 유족회나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와 종교계·교육계는 정교 분리가 담보되지 않는 점이나 국가 신도(神道)의 재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야스쿠니 국가 호지 문제).

많은 전중과 문화인들도 이 움직임에 반대했지만 그 논거는 다소 달랐다. 야스다 다케시와 하시카와 분조 등은 오히려 죽은 자를 찬양하고 치켜세우는 것이 군과 국가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감추고, 결과적으로 죽은 자의 입을 봉할 것을 우려했다. 야스다는 이미 『전쟁체험 1970년대의 유서』(1963년)에서 “‘타인의 죽음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는다’는 것은 산 자의 오만한 퇴폐”라고 말한 바 있다.¹¹ 그것은 현창을 통해 죽은 자의 원한을 외면하는 전후 ‘산 자’의 욕망을 힐문하는 것이었다.

‘현창’과 ‘가해’의 이항대립

그러나 이렇듯 뒤엎힌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가해(책임)’와 ‘현창’의 이항 대립이 전경화(前景化)되었다.

야스쿠니 국가 호지 문제가 진정된 뒤, 일본 유족회와 자민당 보수파는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에 무게를 싣게 되었다. 1979년에는 A급 전범의 합사 사실이 알려졌으므로, ‘전후 40년’인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전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를 하자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1982년에는 일본의 대

록 침략에 관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교과서 문제가 과열되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전쟁에 대한 평가는 ‘전사자의 현창’에 무게를 두는 논의와 ‘가해 책임’을 직시하려는 논의로 양분되었다. ‘피해’와 ‘가해’가 아니라 ‘가해’와 ‘현창’의 이항 대립이 거기에 나타났다.

예전에는 ‘가해’의 문제는 ‘자기에 대한 물음’과도 결부되어, 특정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폭력을 낳는 구조를 되짚어보려는 (어렵쫄한) 계기도 보였다. 전사자를 현창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전사자의 분노가 가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반전’, ‘평화’의 정치주의가 전사자나 전쟁 체험자의 복잡한 심정을 외면하게 하고, 전쟁 체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점은 1980년대 이후에 대체로 희미해지고, ‘현창’과 ‘가해’라는 이항 대립만이 재생산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쟁 체험의 단절’도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전중파보다 아래 세대가 사회적 발언의 힘을 가진 연령대가 되고, 또 전중파 문화인들도 아래 세대의 압력에 싫증이 났는지 전쟁 체험에 대한 발언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애초에 야스다 다케시나 와타나베 기요시 등, 1980년대에 타계한 전중파도 적지 않았다. 필연적으로 체험을 둘러싼 세대 간의 충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냉전이 종식되자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그동안 친미독재정권에 억눌려 온 개인 배상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났고, ‘전후 50년’이라는 시대적 구획도 맞물려 일본의 전쟁 책임, 식민지 책임에 이전보다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¹² 일본 국내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마주하려는 미디어 담론과 시민 운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전쟁 책임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긍정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역사 수정주의’도 널리 나타났다. 그것은,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만화 『신 고마니즘 선언 SPECIAL 전쟁론』(1998년)등을 통해서, 대중 문화 속에도 침투해 갔다.¹³

역사 인식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창’과 ‘가해(책임)’의 이항 대립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가해’의 문제를 생각하려는 자는 ‘현창’을 주장하는 담론을 접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논의가 나오면 나올수록 서로 다른 입장 간의 소통이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측의 포용 불가능성만 확대 재생산된다. 이러한 상황이 냉전 종식 이후 일본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계승’이라는 단절

오늘날 일본에서도 ‘전쟁 기억의 계승’은 많이 회자된다. 특히 ‘종전 기념일’이 있는 8월에 저널리즘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배경에는 전쟁 체험자 상당수가 타계하여 점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계승’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봐도 좋을 것이다.

1990년대에 나타났던 역사 인식의 이항 대립은 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비슷한 논의로 과열되는 현상은 종종 나타난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역사 인식을 둘러싼 인터넷 담론은 양적으로 방대하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입장 간의 상호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선호하는 담론만 접하고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검색’과 ‘이력’에 의거하여 정보 액세스를 조정하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담론 공간과의 연속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역사인식 문제가 항상 초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스미디어에서는 ‘불길’을 피하는 듯한 무난한 논의도 많이 볼 수 있다. ‘현창’이나 ‘가해’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기억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를 암시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계승’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 단절이나 망각을 거친 옷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죽은 자의 감명’에 대한 항거, ‘자기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가해’, 폭력을 낳는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 오늘날의 미디어 담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일종의 ‘알기 쉬움’이 전경화되어 있다.¹⁴

그러나 과거의 담론에 눈을 돌리면 또 다른 논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한때 ‘계승’보다 ‘단절’이 두드러진 시기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오히려 전쟁 체험과 기억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이 떠오르고 있었다. ‘반전의 올바름’이 때로 무엇을 보기 어렵게 만들었는가. ‘가해’를 논하는 것이 ‘남의 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를 뒷받침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덧붙여 말하자면 ‘가해’를 낳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러한 논점은 옛날의 미디어 담론이나 미디어 문화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역사 인식을 둘러싼 일본과 동아시아의 ‘화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논의의 양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만들어졌는가.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관련되어 있는가. 어떤 논점이 상실되었는가. 이러한 물음을 마주하는 것은 오늘날 자명시되는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계승의 역사’가 아니라 ‘단절의 역사’, ‘망각의 역사’를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 후쿠마 요시아키 (福間良明 / FUKUMA Yoshiaki)

1969년, 구마모토시 출생. 1992년, 도시샤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신문학 전공 졸업. 출판사 근무를 거쳐, 2003년 교토대 대학원 인간 환경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박사(인간 환경학). 카가와대학 경제학부 준교수를 거쳐, 현재 리즈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교수. 전문은 역사사회학 및 미디어사.

주요저작: 『「戦争体験」の戦後史——世代・教養・イデオロギー』(‘전쟁체험’의 전후사: 세대·교양·이데올로기) 中公新書, 2009년. 『戦後日本、記憶の力学——「継承という断絶」と無難さの政治学』(‘전후 일본, 기억의 역학: ‘계승이라는 단절’과 무난함의 정치학) 作品社, 2020년. 『司馬遼太郎の時代——歴史と大衆教養主義』(시바 료타로의 시대: 역사와 대중교양주의) 中公新書, 2022년.

¹ 후쿠마 요시아키, 『「근로청년」의 교양문화사』, 이와나미 신서, 2020

² 후쿠마 요시아키, 『「전쟁체험」의 전후사-세대·교양·이데올로기』, 중앙공론 신서, 2009

³ 요시다 미쓰루, 『「전함 야마토」와 전후 요시다 미쓰루 문집』, 치쿠마학예문고, 2005, 195 쪽

⁴ 이노우에 요시카즈, 『일본주의와 도쿄대학-쇼와기 학생 사상 운동의 계보』, 가시와쇼보, 2008

- ⁵ 이에키 미요지, <약자의 용기>, 《교육》 186 호, 1965, 64 쪽. 이에키 미요지 <영화 예술인의 반성과 자기 혁신에 대하여>, 《영화제작》 제 1 호, 1946 (미나미 히로시(편) 『전후 자료·문화』, 일본평론사, 1973, 123 쪽).
- ⁶ 나카지마 사다오 <아, 동기의 벚꽃>, 《영화예술》 1967 년 5 월호. 특공대를 다룬 영화·유고집 등 '특공' 이야기의 전후사에 대해서는 후쿠마 요시아키 『순국과 반역: '특공'이야기의 전후사』(세이큐샤, 2007) 참조.
- ⁷ 요시다 유타카, 『일본인의 전쟁관: 전후사 안에서의 변용』, 이와나미 현대문고, 2005. 전후 일본의 전쟁 영화에서 해군이 많이 다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본 해군의 충칭 폭격 등에 초점을 맞추는 작품은 거의 없었다. 후쿠마 요시아키, 『순국과 반역』(앞의 책) 참조
- ⁸ 와타나베 기요시, 『부서진 신—한 귀환병의 수기』, 이와나미 현대문고, 2004. 후쿠마 요시아키, 『「전쟁체험」의 전후사』(앞의 책)
- ⁹ 아사히 선서(選書)(아사히신문사) 중 하나로 나온 이 책은 2004 년 이와나미 현대문고판으로 재간행되었다.
- ¹⁰ 후쿠마 요시아키, 『시바 료타로의 시대』, 중앙공론 신서, 2022
- ¹¹ 야스다 다케시, 『전쟁체험 1970 년대의 유서』, 미라이샤, 1963, 142 쪽
- ¹²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사노 도요미(편) 『화해학의 시도—기억 · 감정 · 가치 (화해학 엄서 1)』, 아카시쇼텐, 2021 참조
- ¹³ 이런 가운데 유고집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들>(신판)이 1995 년 개봉했다. 여기에는 일본군 병사들의 필리핀 주민 학살과 ‘중군 위안부’ 문제도 다루어지는 등, ‘가해’에 대한 논점이 담겨 있었다. 다만 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만 있고, 와타나베 기요시가 제기한 ‘스스로가 폭력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려져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는 폭력을 정당화(자명시)한 사회 구조에 대한 물음이 후경화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후쿠마 요시아키, 『「전쟁 체험」의 전후사』(앞의 책).
- ¹⁴ ‘계승’의 무난함이 내포하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후쿠마 요시아키 『전후 일본. 기억의 역학—「계승이라는 단절」과 무난함의 정치학』(사쿠힌샤, 2020) 참조.